

광주 FC “내년엔 승격”

엄원상·이희균 등 우선지명 5명 수혈

광양서 동계훈련 ... 1월 오키나와서 본격 담금질

광주 FC가 1월 2일 2019시즌을 위한 새 결음을 내디딘다. 우선지명 선수들로 전력을 채웠고, 새로운 동계훈련지도 준비했다.

지난 11월 28일 대전 시티즌과의 준플레이오프를 끝으로 2018시즌의 여정을 마무리했던 광주 선수들이 2일 목포 축구센터에 모여 새해를 연다.

4일 광주 임주체육관에서 체력 테스트를 갖고 몸상태를 점검하는 광주 선수단은 이후 7-8일 정도에 광양으로 건너가 1차 동계 훈련을 진행한다.

기초체력훈련에 초점을 맞춰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광주는 1월말 일본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전술 훈련과 손발 맞추기에 돌입한다. 오키나와가 박진섭 감독의 두 번째 시즌의 청사진을 그리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광주는 3주기량의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2019시즌의 베스트 멤버를 가릴 예정이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광주는 우선지명 5인을 불러들이면서 새 피도 수혈했다.

광주는 26일 공격수 엄원상(19·아주대)과 이희균(20·단국대)을 비롯해 미드필더 손민우(21·동국대), 정현우(18·금고고), 골키퍼 김태곤(19·전주기전대)을 새 식구로 맞았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엄원상이다.

173cm·63kg의 날렵한 체격을 지닌 엄원상은 '암살자', 'KTX'로 불릴 정도로 폭발적인 스피드와 함께 저돌적인 돌파를 자랑한다.

고교 시절부터 태극마크를 단 엄원상은 2016 카타르 4개국 친선대회를 시작으로 2018 수원 JS컵, 2018 톨루컵 등 연령대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됐다. 현재

는 U-19 부동의 공격수로 맹활약하며 22경기 9득점을 기록 중이다.

이희균(168cm·63kg)은 적극적인 드리블 돌파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측면 공격수다.

단국대 재학시절 2017 제48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교체투입으로만 5골을 기록하며 득점왕과 팀 우승을 동시에 이끌었다. 지난 3월엔 2018 톨루컵에 발탁됐다.

손민우와 정현우는 중원에서 팀 득점을 도운다.

활발한 활동량과 안정된 경기운영이 돋보이는 손민우(176cm·74kg)는 중원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자처한다.

금고고 재학시절 나상호와 함께 2014 아디다스 올인 K리그 주니어 우승에 기여하며 도움 2위(8도움)에 오른 손민우는 날카로운 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시 득점력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2000년생 '막내' 정현우는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 무대에 발을 딛는다.

174cm·65kg로 체격은 작지만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공격적인 패스로 팀 득점의 연결고리를 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정현우는 2017 제 19회 백운기 고교축구대회 우승과 2018 제 73회 고교선수권대회 우승에도 기여했다.

다부진 체격(187cm·81kg)의 김태곤은 광주의 골문을 책임질 재목으로 공중볼 처리와 선방능력이 뛰어나다.

올해 2018 제 14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팀의 준우승을 이끌며 우수 선수상을 받는 등 대학 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받는다. 최근엔 U-23 대표 울산 전지훈련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6일 광주 FC의 우선지명 선수로 영입된 김태곤(왼쪽부터)·이희균·엄원상·정현우·손민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여자축구, 중국·호주 친선대회 참가

대표팀 명단 26명 발표

국제축구연맹(FIFA) 2019 프랑스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는 여자축구 대표팀이 중국과 호주에서 열리는 친선대회에 잇따라 참가해 실전 감각을 키운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내년 1월 17~20일 중국 메이저우에서 열리는 4개국 친선대회를 앞두고 26명의 대표팀 명단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내달 10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모여 이튿날 중국으로 떠난다. 중국에서 열리는 4개국 친선대회엔 한국과 중국 외에 루마니아와 나이지리아가 출전한다. 대표팀은 내달 17일 루마니아와 첫 경기를 치른다.

대표팀은 이어 내년 2월에는 호주에서 열리는 4개국 친선대회에 참가한다. <2019 중국 4개국 여자축구 친선대회 참가 명단(26명)>

▲GK = 윤영글(경주 한수원) 강가애(구미 스포츠포토) 정보람(화천 KSPO) ▲MF = 이영주(이소담 한채린(이상 인천 현대제철), 강유미 전가을(이상 화천 KSPO), 조소현(무소속), 장창(서울시청), 문미라(수원도시공사), 이민아(고베 아이아) ▲FW = 이금민(경주 한수원) 손화연(창녕WFC) 정설민(인천 현대제철) 지소연(첼시 레이디스) 여민지(수원도시공사) /연합뉴스



이민아

), 이은미(수원도시공사), 하은혜(구미 스포츠포토) ▲MF = 이영주(이소담 한채린(이상 인천 현대제철), 강유미 전가을(이상 화천 KSPO), 조소현(무소속), 장창(서울시청), 문미라(수원도시공사), 이민아(고베 아이아) ▲FW = 이금민(경주 한수원) 손화연(창녕WFC) 정설민(인천 현대제철) 지소연(첼시 레이디스) 여민지(수원도시공사) /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북한 대표팀의 친선경기.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항서의 베트남 축구 북한과 1-1 비겼다

아시아컵 앞두고 친선경기 A매치 17경기 무패 행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을 앞두고 치른 '다크호스' 북한과 평가전에서 비겼다.

베트남(FIFA랭킹 100위)은 25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딘경기장에서 열린 북한(109위)과 친선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지난 15일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뒤 불과 열흘 만에 A매치를 치렀는데, 여전히 날카로운 경기력을 유지하며 아시아컵 전망을 밝혔다. 아울러 베트남은 A매치 17경기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

경기 초반은 팽팽하게 전개됐다. 양 팀은 주로 중원 싸움에 전념했다.

북한은 전반 24분 결정적인 기회를 먼저 잡았다. 정일관이 김영일의 스투패스를 받

아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슈팅해 골망을 갈랐다. 그러나 부심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내려지면서 골로 인정받지 못했다.

베트남도 전반 36분 쓰영이 중거리 슈팅을 날리는 등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베트남은 후반 9분 선취 골을 넣었다.

베트남 응우옌티엔링은 역습 기회에서 스투패스를 받아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잡았다. 이어 왼발로 침착하게 득점을 기록했다.

베트남은 이후 북한의 맹공에 시달리다 후반 36분 동점 골을 허용했다. 북한은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했다. 정일관이 환상적인 오른발 감아치기로 골망을 흔들었다.

양 팀은 경기 막판까지 공격을 주고받다 그대로 경기를 끝냈다.

베트남은 다음 달에 열리는 아시아컵에서 이란, 이라크, 예멘과 조별리그를 펼친다. 북한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레바논과 경쟁한다. /연합뉴스

모두가 기뻐한 이 장면 ... AP 선정 '올해의 스포츠 이변'

한국이 전차군단 독일을 2-0으로 제압한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 이변' 중 하나로 포함됐다. AP통신은 26일 오후 한 해 전 세계 스포츠계에 일어난 '깜짝 결과' 8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이변을 일곱 번째로 꼽으며 한국-독일전을 비롯해 리오넬 메시의 페널티킥 실축이 나오며 1-1로 비긴 아르헨티나-아이슬란드전,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꺾은 러시아까지 3경기를 언급했다.

AP통신은 "디펜딩 챔피언 독일은 조별리그 탈락을 피하기 위해 큰 승리가 필요했으나 한국에 0-2로 지고 말았다"며 "이러한 이변들이 러시아 월드컵을 최고의 대회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이 꼽은 올해 스포츠 최대 이변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손흥민이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은 지난 3월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토너먼트에서 최하위 16번 시드의 메릴랜드-볼티모어 카운티대(UMBC)가 1회전에서 톱 시드 버지니아대에 20점 차 대승을 거둔 것이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투어 챔피언십 우승도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오랜 허리 부상으로 고전하며 세계랭킹 1000위 밖으로 추락했던 우즈는 허리 수술 후 복귀해 부활의 시동을 걸더니 9월 1876일 만에 통산 80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미국프로풋볼(NFL) 절대 강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꺾은 마이애미 돌핀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준결승에서 캐나다를 꺾은 독일, '백업 쿼터백' 닉 폴스의 활약으로 이뤄낸 필라델피아 아이글스의 슈퍼볼 우승 등도 올해 스포츠 이변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남태희, 아시아컵에서 볼 수 없는 아시아의 별

폭스스포츠 아시아판

벤투호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다 부상 이탈한 남태희(알두하일)가 '아시아컵에서 볼 수 없는 아시아의 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폭스스포츠 아시아판은 25일(현지시간)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아컵에 결장하는 스타 5명을 소개하면서 남태희를 거론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을 앞세운 한국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남태희가 부상 이탈한 건 아쉽다"라며 "남태희는 대

표팀과 소속팀에서 맹활약한 한국의 주요 자원이었다"라고 전했다.

남태희는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에서 오른쪽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전역에서 이탈했다.

치료와 재활에만 6개월 정도가 걸려 아시아컵 출전이 무산됐다.

남태희와 함께 오만 대표팀 골키퍼 알리 알함시(알힐랄), 호주 수비형 미드필더 에런 무이(허더즈필드), 아랍에미리트 미드필더 오마르 압둘라흐만(알힐랄), 시리아 공격수 알카타브(알살미야)가 아시아컵에서 볼 수 없는 스타로 꼽혔다. /연합뉴스

이근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신입회장 선임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울산 현대 공격수 이근호(33·사진)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회) 신입회장이 됐다.

선수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근호는 지난 4일 정기총회를 통해 신입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2004년 인천 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 무대를 밟은 이근호는 대구FC와 울산, 상주 상무, 전북 현대, 제주 유나이티드, 강원FC 등 다수의 구단에서 활약했다.

많은 구단에서 다양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선수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근호는 매년 자선 축구대회를 열거나 거액을 기부하는 등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수원 삼성 염기훈과 울산 박주호, FC 서울 윤석영은 신입 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선수협회 이사진은 기존 정성룡(가와사키), 김신욱(전북), 김한섭(용인시청), 곽희주(전 수원) 이사를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